



전광영작 '집합'



이배작 'UNTITLED'



김25작 'The Tide Rises, The Tide Falls'



오세열작 'Untitled'

<나인갤러리 제공>

'6人 6色'...세대를 넘어, 시대를 담다

전광영·이건용·이배·오세열·김25·우병출 참여...31일까지 나인갤러리서 新소장품전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초대됐던 전광영 작가의 전통 한지로 표현된 '집합' 시리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스티로폼을 종이에 싸고 묶는 이색적인 기법으로 수공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작업 방식을 펼쳐 보인다.

국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행위예술 1세대 작가인 이건의 옹의 신체 드로잉 작품도 선보인다.

작가는 미술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그의 '신체'와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에게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신체'와 '장소'는 서로 공존해 그 존재의 의미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광주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에서 신소장품전이 펼쳐진다. 5년여 전부터 꾸준히 컬렉션을 해왔던 작가 6인의 작품 20여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한국 화단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한 '꽃의 작가' 이배의 작품도 전시된다.

꽃가루를 안료와 함께 섞어 작업하는 미디어 작품 2점이다. 이배 작가는 '꽃'이라는 향토적인 재료와 흑백의 서체적 추상을 통해 한국형 모노크롬 회화를 세계 미술계에 선보여왔다. 흰 바탕에 강렬한 검은 획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그의 작품에서는 동양적인 분위기는 물론, 추상과 평면성이라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어린아이가 칠판에 뽀뽀뽀하게 쓴 글씨체와 생동감은 오브제처럼 단순하면서도 그림을 잘 그리려 애쓰지 않는 순수작가 오세열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그의 그림은 유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의 텅텅한 질감으로 인해 마치 그림면에 오랜 시간의 지층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고독적인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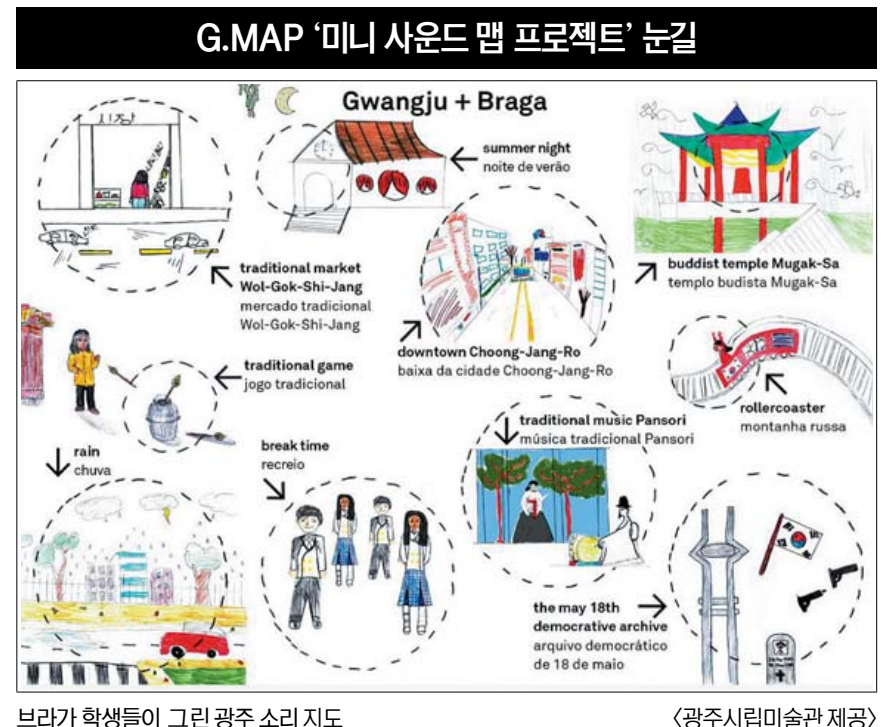
최근 국내의 아트페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25작가의 그림은 바다와 파도의 명암을 어린 세필화로 글씨

써 표현한 결과물이다. 그가 글자로 치밀하게 쌓아 올린 파도는 현실의 바다가 아니다.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라 추상화로 풀어낸 것이며, 작가는 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이 열린 텍스트로 읽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10여 년간 나인갤러리와 함께 미래를 꿈꿔왔던 우병출 작가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를 아날로그적으로 융합하는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는 캔버스 프레임 안의 모든 망점을 제거하고 원경의 사물까지 동일한 선으로 명확히 표현했다. 작가만의 섬세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사물과 세상이 캔버스 속에 펼쳐진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최명진 기자



브라가 학생들이 그린 광주 소리 지도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역사·문화 담긴 ‘소리’로 색다른 지도 만들었어요”

멀리 떨어진 두 도시 학생들이 서로 사는 곳의 '소리'를 채집해 만들어낸 도시 지도가 눈길을 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포르투갈 브라가시 브라가 미디어아트센터가 완성한 '미니 사운드 맵 프로젝트'다.

지난 9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광주 예술중 학생 41명과 포르투갈 브라가시 안드레 소아레스 초등학교 학생 28명이 함께 했다.

두 도시 학생들은 각각 광주와 브라가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찾아보며 각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소리를 모았다.

소리는 해당 도시의 역사 문화에 기반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채집했다.

광주의 경우 5·18광주민주묘역, 무각사, 충장로, 전통시장, 브라가시는 집시 노래와 포르투갈의 애절한 멜로디, 고된 삶을 담은 파두 음악이 들리는 장소 등이다.

광주 학생들이 브라가시 학생들이 보낸 소리와 역사를 바탕으로 소리지도도 제작했고, 브라가시 학생들 역시 광주에서 보낸 소리와 도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리지도도 완성했다.

소리 지도는 드로잉, 회화, 디지털 몽타주 등 다양한 기법으로 그려졌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의 모습이 아이들 특유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미니 사운드 맵 프로젝트'는 포르투갈 브라가시의 후원으로 브라가 미디어아트 센터가 2018년부터 운영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브라가 미디어아트센터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과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교류의 물꼬를 텄다.

임종영 G.MAP 센터장은 "2023년에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들과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아름다운 전통색과 福된 이야기

광주전통민화협회 초대전, 11일까지 아산조방원미술관

복된 미래를 향한 오래된 아름다운 염원.

아산조방원미술관은 오는 11일까지 지역 순수 미술단체인 광주전통민화협회를 초대해 올해 마지막 기획전 '아름다운 색채, 복된 이야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전통민화협회 회원 12인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민화 작품 30점을 소개한다.

광주전통민화협회는 한국미협 민화분과 이사이자 백야전통민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화 작가 성혜숙 선생의 가르침 아래 꾸준한 연구와 활동을 하며 매년 정기전과 초대전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민화는 조선 후기 실학에 의한 시민사회 성장과 실리와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 유행했다.

신분상승 등이 계기가 돼 현실의 안락과 풍요 기원의 욕구가 강해지고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극복의 염원이 민화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 시작은 왕실이었던 민간의 작자미상 작품들은 제도권 밖의 환경이나 은퇴한 화원들이 제작한 것들이 다수였다. 아울러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화가들의 세속적 욕망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소장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아산조방원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작들 또한 과거의 전통적 소재와 방식 그리고 유구한 역사 속 이어져 온 욕망의 도상들을 통해 시대는 변하나 인간의 욕망은 한결같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시대의 전통민화를 통해 아름다운 색채를 즐기면서 도상들이



성혜숙작 '화조도'

<아산조방원미술관 제공>

담고 있는 복된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전남문화재단, 판소리 교육영상 콘텐츠 송출

도립국악단 협업 '우리소리 배워보세-온(溫)LiNE' 5편 제작

전남문화재단은 1일 "문화예술이 열려야 하는 지역민의 국악교육을 위해 판소리 교육영상 콘텐츠 '우리소리 배워보세-온(溫)LiNE'을 제작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립국악단과 연계해 제작한 판소리 교육영상 콘텐츠는 총 5편이다.

해설이 있는 교육영상 콘텐츠는 '판소리의 발생과 이론', '춘향가 중 '갈까'

부다'와 '신연맞이' 대목 3편이며,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영상 콘텐츠는 도립국악단이 부른 춘향가 중 '갈까부다'와 '신연맞이' 대목 2편이다.

해설이 있는 교육영상 콘텐츠는 1편당 15분이며, 감상용 공연영상 콘텐츠는 1편당 10분이다. 판소리 교육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전남문화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전남 수목장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장묘 추세는? 봉분, 봉안(납골)

자연장, 수목장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수목장 전문업체입니다.

상담문의 062-464-3466

고민은 좋은 자리만 놓칠 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